

## 트루먼 카포티의 단편소설에 나타나는 남부인의 포용성

이 영 애  
(한라대학교 / 교수)

Yi, Young-ae. Southern Hospitality in Truman Capote's Short Stories.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7 (2020): 151-17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uman Capote's short stories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ern hospitality based on Derrida's hospitality theory. According to Derrida's hospitality, the host should provide the guest with unconditional welcome including food and place. In the realm of conditional hospitality, the guest should have a name and behave in adherence to the master's rules. In many short stories, Capote presents his autobiographic vision in the name of Buddy. In "One Christmas," Buddy's father offers him a shelter, shoes, and a present unconditionally. Buddy as a guest should follow father's rules unwillingly so he misses Sook's home. This proves why Derrida's hospitality is contradictory. Under the authority of the master, the visitor obeys the rules. In "The Thanksgiving Visitor," Odd Henderson, a nemesis of Buddy's, accepts Sook's welcomed hospitality. Despite Odd's theft, Sook lies to give unlimited welcome in all ways as a host. "A Christmas Memory" shows American traditions and southern reconciliation through Sook's hospitality. Capote uses hospitality to describe Southern culture and tolerance. Even though he didn't want to be called a southern writer, I am sure he is a representative of southerners. (Halla University)

Key words: Derrida, "One Christmas," Southern hospitality, "The Thanksgiving Visitor," Truman Capote

### I. 서론

개인적으로, 나는 스스로를 지역에 연계되어져 있는 작가라고 여긴 적이 없었다. 나는 그 당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내 첫 작품은 남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내 작품의 소재는 소설이든, 비소설이든, 1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야기들을 주로 다룬다. 지금은, 당연히, 남부는 나에게 너무나도 떨어져 있

다. 남부는 더 이상 나에게 그 어떤 소재도 던져주지 못하고 있다.

(Newquist 42-43)

위 인용은 1964년 한 인터뷰에서 트루먼 카포티(Truman Capote, 1924~1984)가 스스로에 대해 남부작가로 분류되기를 꺼려했던 점을 잘 보여준다. 우리에게는 영화로 만들어진 『티파니에서 아침을』(*Breakfast at Tiffany's* 1958)로 잘 알려진 카포티는 미국 남부 출신의 작가이다. 미국에서 플랜너리 오코너(Flannery O'Connor)나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Francis Scott Fitzgerald)와 함께 “식을 줄 모르는 인기로 평생을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으로 살았던”(Solomon 135) 카포티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평가와 달리 “그의 소설에는 확실히 남부 향토작가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으며 향토색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비전”(김정매 664)을 담고 있다. 비평가 이합 하산(Ihab Hassan)은 카포티를 “남부 출신의 고딕 소설가”(230)라고 단정짓고 있고, 카포티의 작품들 속에는 “남부 특유의 문화”(Bibler 285)가 잘 드러난다.<sup>1</sup>

카포티는 1924년 루이지애나(Louisiana)주 뉴 올리언스(New Orleans)에서 태어났으나, 불행한 가정환경으로 앨라바마(Alabama)의 먼로빌(Monroeville)에 있는 먼 친척집에서 생활하였다.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다분히 천재성을 가진 그는 1948년에 출판된 첫 소설인 『다른 목소리, 다른 방』(*Other Voices, Other Rooms* 1948)으로 미국 내에서 주목받는 작가가 된다. 『다른 목소리, 다른 방』은 퇴폐적인 남부세계를 배경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1951년에 출판된 『풀잎 하프』(*The Grass Harp* 1951)는 앨라바마를 배경으로

<sup>1</sup> 비평가 존 엘드리지(John W. Aldridge)는 “카포티를 『황금만큼 좋은』(*Good as Gold*)의 헬러(Heller), 『래그타임』(*Ragtime*)의 닥터로우(E. L. Doctorow), 그리고 『감옥새』(*Jailbird*)의 커트 보네겟(Kurt Vonnegut)과 같이 사실에 바탕을 둔 소설을 쓴 작가”(106)로 분류하기도 한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소설을 쓴다는 점에서 카포티의 『인 콜드 블러드』(*In Cold Blood* 1965)를 대표적인 논픽션소설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장르에 대한 언급은 배제시키고자 한다.

어린 시절의 향수를 담고 있다. 카포티는 중장편 소설 이외에 다양한 단편소설을 통해 미국 남부의 문화를 잘 그려낸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단편소설인 「크리스마스의 추억」(“A Christmas Memory” 1956), 「추수감사절에 온 손님」(“The Thanksgiving Visitor” 1967), 그리고 「어떤 크리스마스」(“One Christmas” 1982)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적 색채가 강한 기념일들을 소재로 하고 있다. 카포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여러 단편들을 통해 재현하는데 성공한다. 뉴올리언스 출신이 앨라바마에서 여러 해에 걸친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경험한 남부 가정 특유의 문화, 먼 친척이지만 카포티에게 부모의 역할을 했던 숙 포크(Sook Faulk)과의 특별한 시간, 그리고 부성애를 느끼기에는 너무나 젊었던 아버지와의 크리스마스 추억을 그려낸다. 카포티는 자신의 작품을 빛나게 하는 배경으로 “소외라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겪게 하는 대도시가 아니라 작은 남부의 마을”(Hassan 233-34)을 선택하고,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사건들을 통해 “남부인이라면 빠져 나갈 수 없는 기독교적인 색채”(Barr 200)로 “인간애정의 단절과 부재에 대해 결속과 회복을 절규”(김상구 112)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과 같이 중요한 날에 많은 손님을 초대하여 대접하는 미국 남부의 문화를 그려내는 카포티의 단편소설들에서 공통적으로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환대(hospitality)<sup>2</sup> 이론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비평가 타일러 케슬(Tyler Kessel)은 “미국 소설 영역 내에서 환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185)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남부 사회에서 보여지는 환대는 “개인적인 동시에 관습적인 답습”(Megehee 98)으로 주인과 손님 사

<sup>2</sup> ‘hospitality’를 한국어로 ‘환대’라고 대부분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도 환대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본 논문의 제목에서 만든 그 의미를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 남부의 파스함이라고 명명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에 의해 서로의 행동을 규제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특징을 보인다. 데리다는 이 점을 “환대의 법칙”(Derrida 4)이라고 명명한다. 데리다의 환대의 법칙에 따르면, 자아와 타자를 “초대받은 자/초대받지 않은 자, 주인(host)/인질(hostage)과 같은 이분법”(Kessel 185)적인 시각으로 구분한다. 카포티의 자서전적인 특징을 내포한 단편소설들의 배경인 1960년대 미국의 남부는 “인종차별주의와 결합된 동성애 혐오가 만연한”(Bibler 285) 곳으로 성소수자/정상인, 동성애자/동성애 혐오자와 같은 대립으로 계층간의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1960년대 남부 특유의 환대 문화가 미국 전체에 만연”(Bibler 297)해있던 시대와 공간을 배경으로 카포티는 자신의 작품에서 극명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다양한 부류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의식 및 윤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Bibler 285)함으로써 “우리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인간적인 성숙이라는 새로운 장”(Hassan 258)을 열고 있다.

트루먼 카포티에 대한 국내 연구는 국회도서관 자료에 의하면 주로 장편소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트루먼 카포티의 예술과 논픽션 문학: *In Cold Blood*를 중심으로」는 사실에 바탕을 둔 픽션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분석하고 있고, 『다른 목소리, 다른 방』에 나타나는 상징을 연구한 논문도 있으며, 문학작품에 대한 어학적 접근으로 『다른 목소리, 다른 방』에 나타나는 전치사를 연구한 논문도 있다.<sup>3</sup> 국내 학술 기사에서 찾을 수 있는 연구는 앞에 언급한 세 개가 전부였다는 점에서 카포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카포티에 대한 해외 연구도 역시 주로 중장편에 대한 연구<sup>4</sup>와 사실에 근거한 소설쓰기라

3 여갑기. 「A Short Study on the Preposition For in *Other Voices, Other Rooms*」, 『경일대학교 논문집』 (1971), pp. 43-49.

4 대표적으로 McCollam, Douglas의 2012년 “*In Cold Blood*: Douglas McCollam excavates Truman Capote’s fateful 1957 New Yorker Profile of Marlon Brando”이라는 연구와 Alison M. Lewis의 “Party of the Century: The Fabulous Story of Truman Capote and His Black and White Ball”(2006),

는 장르적 접근에 대한 연구<sup>5</sup>가 있을 뿐, 단편소설에 대한 연구 역시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카포티가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데리다의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함으로써 카포티 연구에 하나의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데리다의 환대 이론을 정리하고, 카포티의 단편소설 속 등장인물들에게 적용하여 분석해본다. 이를 통해 카포티가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미국 남부의 오랜 전통과 문화를 재조명하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사회상 구현을 통해 카포티가 보여주고자 하는 인간애에 대한 애착과 예술적 비전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데리다의 환대의 법칙

‘환대’라는 단어에는 “역사적, 윤리적, 법률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Derrida 3)인 개념이 모두 내포되어져 있다. 환대라는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자아/타자, 주인/손님, 친구/이방인과 같은 이분법적인 경계가 필요하다. 데리다의 환대는 주로 타자, 손님, 이방인에 대한 것으로, “이방인들은 그들의 정체와 상관없이 환영받아야한다”(Stronks 74)는 것을 전제로 한다. 환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타자에 대한 열림, 즉 ‘나 자신’과 같은 것이 아니며 그렇게 되지도 않는 다른 것에 대한 열림”(Jennings 239)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는

---

Klaver E. T.의 “Freaks Shows and the Modern American Imagination: Constructing the Damaged Body from Willa Cather to Truman Capote”(2007) 등을 들 수 있겠다.

<sup>5</sup> George Plimpton의 “The Story Behind a Nonfiction Novel”(1966), Albin Krebs의 “Capote, Writer of Style and Clarity, Dies”(1984)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개념은 “타자와 늘 나란히 삶을 병행해 나가는 이방인에게 있어 환대란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필수 덕목”(김광기 145)이 되고 있다. 데리다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놓은 타자, 손님, 이방인들을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타자성 또는 이타성을 존중하며 환영하는 의무”(Jennings 239)에서 환대의 개념을 출발시키고 있다.

데리다는 환대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환대의 법칙은 가정의 법, 장소의 법이며 이와 동시에 정체성에 대한 법이기도 하다”(4)라고 정의한다. 환대의 법칙은 “가정 내에서 지켜야 할 조건적 권리이자 의무”(Derrida and Dufourmantelle 77)로 이 규칙은 영역 내에 들어온 이방인의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명확히 적용된다.<sup>6</sup> ‘다름’을 강조하는 타자성을 존중하지만, 내 영역에 들어온 이방인에게 새로운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비평가 스트롱스(M. C. Stronks)는 “환대는 자기모순적인 개념”(75)이라고 지적한다. 손님은 타인의 집안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그 집의 주인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이와 반대로 주인은 자신의 집에 온 이방인에게 무조건적인 환영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환대의 법칙의 가장 큰 룰이다.

타자는 주인이 설정해 놓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데리다의 환대의 법칙은 “조건적 환대이자 절대적 환대”(Kessel 186)라는 특징을 띤다. 보이지 않는 제한을 두는 조건적 환대에서는 “이방인, 타자, 외래 물체를 아주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어떤 지점까지는 받아들이는”(김진 78) 특징을 보인다. 환대를 받기 위해서 타자는 주인이 암묵적으로 제한시켜 놓은 범위 내에서 행동의 제한을 받을 수 있기에 조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절대적 환대의 법칙 하에서 이방인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적절하게 행동해야 하며, 주인의 권위를 존중”(Kessel 186)해야 한다. 이방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집주인이 제공하는 “환대의 법칙에 순응”

<sup>6</sup> 여기에서 가정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환대의 법칙을 단순히 가정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은 “가정, 도시, 국가, 언어, 혹은 타인으로부터 환영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들”(Derrida 6)을 뜻한다.

(Stronks 75)해야만 하기에 절대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주인의 영역 내에서 손님은 “예의바른 태도로 행동하는 한 적대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Derrida 5). 타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기대하고, 타자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진다는 조건하에서 환대가 제공되므로 환대는 주인의 안전 확보가 내포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데리다는 주인의 입장에서 타자가 지닌 타자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무조건적 환대”를 제공해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데리다에게 순수한 환대나 무조건적 환대는 초청을 받은 사람이 초청자의 언어, 전통, 기억이나 그가 속한 영토의 법률과 규범들에 순응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대되지도 초대되지도 않은 모든 자에게, 절대적으로 낯선 방문자로서 도착한 모든 자(일어난 모든 것)에게,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는 새로운 도착자에게” 아무 조건없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에서 색다른 개념이다. (김진 77)

위 인용에서와 같이 호스트는 아무런 조건없이 환대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초대한 자는 결국 초대받은 자의 인질”(Derrida 9)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데리다의 환대가 자기모순적이라는 스트롱스의 지적은 타당하다. 한 집의 주인인 호스트는 그가 소유한 공간, 물건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 공간, 물건들을 또한 타자인 이방인에게 개방하고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대는 “권리이자 의무”(Derrida 4)의 기능을 한다. 환대의 법칙 하에서 주인과 손님 사이에는 “서로 환대를 주고받는 것이 한 번 이상”(Derrida 7)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들 사이의 주도권이 호스트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게스트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짐으로써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끊임없이 행사할 수 있음을 뜻한다. 왜냐하면 게스트가 없다면 호스트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제닝스(Jenning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주인은 근본적으로 손님이다. 그러나 주인으로서의 동일성은 손님이 있음에 달려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주인이 되기 위해 나는 손님을 필요로 하며, 그 손님이 없다면 나는 주인이 될 수도 그리고 '집에' 있을 수도 없다. 따라서 나의 주인으로서의 '동일성'은 손님에게 의존적이거나 또는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다. (240-41)

주인과 손님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자아와 타자, 초대한 자와 초대받은 자의 역할은 결국 상대의 존재에 의해 정의되어지고 조건적 환대이든 무조건적 환대이든 환대 자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이자 의무가 될 수밖에 없다.

초대한 자와 초대받은 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환대는 “문화 그 자체”(Jennings 236)이며 미국의 남부는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논리를 포용하기에 적합한 배경이 되고 있다. “미국 남부라는 장소와 인종에 대한 남부의 고정관념이 많은 문학작품이나 심포지엄, 혹은 연구에서 주된 주제로 다루어졌듯이”(Carson 152) 역사적으로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존재했던 미국의 남부는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사상적 접근이 필요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카포티의 단편소설에는 “인종적으로 분리된 남부의 갈등을 중화시키고, 더 넓게는 국가차원에서 화합과 통합의 모델”(Bibler 297)으로써 환대의 법칙이 잘 드러난다. 흑인과 백인, 여성과 남성, 동성애자와 동성애 혐오자를 환대의 법칙에 적용하여 누구든지 주인이자 손님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분리가 아닌 통합, 배척이 아닌 포용이 카포티의 단편소설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미국 남부인의 포용성

본 연구에서 중심으로 다룬 단편들은 공통적으로 남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카포티는 스스로 남부작가로 분류되기를 꺼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부를 배경으로 작품을 썼을까? 물론 그가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곳으로 다른 곳보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남부는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보수적인 곳이다. “인종차별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남부의 갈등을 중화”(Bibler 297)시키고 카포티 스스로가 동성애자였기에 그가 경험했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배경 속 사건을 그려냄으로써 작가는 보수적인 남부에 통합과 인간이해를 위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카포티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성애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은 성적인 성향과 문학성은 별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카포티는 1969년 스톤월 폭동(The Stonewall Riots)<sup>7</sup>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시대적으로 앞선 게이 아이콘”(Solomon 136)이었고, 그의 동성애적인 성향은 “반종교적, 무신론적인 신화”(Barr 200)를 창조하게 만들었다. 카포티의 이러한 성향은 불행했던 어린시절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카포티에게 평범하지 않은 삶을 시작하게 만든 부모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다음은 「어떤 크리스마스」에 묘사된 카포티의 부모에 대한 내용이다.

남달리 지적이었던 내 어머니는 앨라바마에서 가장 예쁜 여자아이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엄마는 16살 때 28살인 뉴 올리언스 가문 출신의 사업가와 결혼하였다. 결혼은 1년간 지속되었다. 엄마는 어머니, 혹은 아내가 되기에는 너무 어렸었다. 또한 그녀는 야망도 컸었다. 즉 엄마는 대학도 가고 직업도 가지고 싶어했다. 그래서 남편을 떠났고, 나에게 대한 처분은 앨라바마에 있는 가족들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었다. (287)<sup>8</sup>

7 스톤월 폭동은 1969년 6월 28일 뉴욕에 있는 스톤월 모텔 내 게이바에서 경찰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미국 사회 내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https://www.history.com/topics/gay-rights/the-stonewall-riots>)

카포티는 부모의 이혼으로 어린 나이에 먼 친척집에 맡겨졌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숙을 만난다. “나이도 많고 백발에, 약간 다리를 저는”(“One Christmas” 287) 숙과 어린 카포티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된다.

어린 카포티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인 숙에 대한 묘사는 「크리스마스 추억」에서 잘 나타난다.

백발에 짧은 머리를 한 여인이 부엌 창가에 서 있다.... 그녀는 작고 반담(Bantam) 지역의 닭처럼 씩씩하다. 그러나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탓에 그녀의 어깨는 불쌍하게도 굽어져 있다. 그녀의 얼굴은 링컨의 얼굴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태양과 바람에 바래져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뼈대가 곱고 섬세하며 그녀의 와인색 눈은 소심해 보인다. (“A Christmas Memory” 213)

숙은 카포티를 버디(Buddy)라고 불렀고, 버디는 카포티의 단편소설에서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인물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버디는 숙과 강아지 퀴니(Quenie)와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며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린 남자 아이가 나이든 노처녀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둘 다 평범하지 않은 외모와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들 각각이 지닌 외로움에 우리가 우정을 공유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The Thanksgiving Visitor” 243)

여성과 어린아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숙과 버디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가 된다. 어린 버

---

<sup>8</sup> 카포티는 부모 가운데에서도 특히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카포티의 어머니에게 모성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카포티는 어머니를 “내 인생에서 최악인 사람”(Lahr)이라고 말할 바 있다.

디가 숙과 쉽게 친해진 데에는 남부인들의 ‘함께’하는 문화가 한 몫을 한다. 공업화, 도시화로 고립되고 핵가족화된 북부와 달리, 농업중심이었던 남부는 대가족이 함께 모여살고, 중요한 명절이면 다함께 모여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문화 속에서 버디는 숙만의 세상과의 소통방식과 연대를 배운다.

「크리스마스의 추억」에서 버디는 숙만의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한다. 케이크 재료를 구하기 위해 피칸 열매를 줍고, 물건을 사며, 당시 주조가 금지되었던 상황에서도 하하 존스(Haha Jones)씨에게 가서 케이크에 넣을 위스키를 구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숙과 버디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내기위해 해마다 크리스마스에 과일 케이크를 만드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들은 왜 과일 케이크를 만드는 것인가?

이 케이크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친구들을 위한 것이었다. 꼭 이웃에 있는 친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우리가 한 번쯤, 혹은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가 멋있다고 상상한 사람들.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아니면 작년 겨울에 강연을 해주었던 침례교 선교사인 Mrs. J. C. 루서와 목사님. 혹은 일 년에 두 번 마을에 들리는 칼같이. 혹은 모빌에서 오는 6시 버스 운전기사인 애브너 팩커. 이 버스 기사는 먼지를 일으키며 우리 앞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준다. 아니면 우리 집 앞에서 차가 망가져 현관에서 우리와 함께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캘리포니아에서 온 부부인 위스톤씨네. (“A Christmas Memory” 218-19)

위 인용에서와 같이 숙은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직접 케이크를 만들고 우편으로 보내는데, 이를 통해 숙과 버디는 “멈춰져있는 하늘만 보이는 우리 집 부엌 너머 재미있는 사건들로 가득한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다”(“A Christmas Memory” 219)고 느낀다. 작은 케이크를 통해 숙은 세상과 공

감하고, 숙과 케이크를 만들며 버디는 숙과의 정신적인 연대감을 키운다. 이 둘의 정신적인 연대감은 버디가 성장하여 앨라바마를 떠난 뒤에도 줄곧 “내 집은 내 친구가 있는 곳, 내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A Christmas Memory” 225)이라고 회고할 만큼 강력하다.

숙과 정신적인 안정감 속에서 생활하던 버디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버디의 인생에는 두 번의 위기가 닥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친아버지와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된 사건이다. 앨라바마에서 숙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해 버디는 뉴 올리언스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초대를 받는다.

나는 울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숲과 농장과 강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앨라바마의 이 작은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숙이 내 머리칼 사이를 손가락으로 쓸어주지 않으면 잠들 수 없다. 그리고 또 나는 낯선 이들이 두렵다. 아버지는 나에게 낯선이었다. 아버지를 여러 번 만나기는 했으나, 그 기억은 희미할 뿐이었다. (“One Christmas” 288)

처음부터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시작된 아버지와 만남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초대할 호스트이고, 버디는 초대받은 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함께 생활해 온 시간이 전혀 없는 “낯선 타인으로 타인에게 다가가는 이방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김광기 133) 즉 환대를 제공받는 것이다.

데리다의 이론에 의하면 호스트인 아버지는 버디에게 “무조건적인 환대를 제공하겠지만, 방문객은 조건적 환대의 한계 속으로”(Kessel 187) 들어간다. 방문객으로서 버디는 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결국 만나러 가게 되는 것도 호스트의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늦지 않게 가는 것도 호스트의 만족과 연관”(Kessel 187)된 환대의 법칙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호스트로서 아버지는 버디에게 음식, 옷, 신발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환대로 제공된 신발은 오히려 버디에게 “납으로 만든 신발처럼 무겁고, 지옥불처럼 뜨거운”(“One Christmas” 290) 것이어서 고문이나 다름없다. 뉴 올리언스에서 먹은 음식들은 버디에게는 모두 “악몽”(290)과 같다. 아버지가 환대의 대상으로 버디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아버지는 합법적인 절차를 받았다는 점 또한 버디가 아버지의 무한한 친절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버디는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절대로 몰랐다”(“One Christmas” 290)라고 기록할만큼 호스트의 범주 내에 머무는 것을 괴로워했으나,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감내할 수밖에 없다.

버디의 상황과 반대로, 초대받은 자는 초대받은 자의 인질이나 다름없다는 데리다의 이론에서와 같이 아버지는 버디에게 무제한적인 환대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디의 말, 행동, 표정의 지배를 받는다. 아버지는 버디에게 뉴올리언스에서 함께 살자는 것을 제안하지만, 거절당한다. 그는 버디로부터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다음과 같이 묻는다.

아버지는 말했다. “나를 사랑하지 않니?”

나는 “예”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숙과 퀴니, 몇몇 사촌들, 그리고 내 침대 머리맡에 있는 아름다운 엄마 사진을 제외하고는 나는 사랑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One Christmas” 290-91)

버디는 “예”라고 대답은 하였으나 호스트가 원하는 진심이 담겨있지 않음을 아버지는 직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전 날 큰 장난감 가게 앞에서 녹색의 몸체에 붉은색 프로펠러를 단 “마법같은 물건에 홀린 채 웃는”(“One Christmas” 291) 버디를 보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버디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한데서 얻은 자신감으로 호스트인 아버지는 게스트를 만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환대의 방식을 찾은 것이다. 이와 같이 호스트와 게스트는 이질적인 타자와의 공존을 위해

계속 주도권을 주고받는다.

아버지가 버디의 사랑을 갈구하며 호스트가 게스트의 인질일 수밖에 없었듯이, 호스트의 영역 내에서는 호스트의 룰을 따라야만 하는 버디는 아버지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장식하는 과정에서 “엄마의 사진을 나무 아래에 두는 실수”(“One Christmas” 291)를 저지른다. 반대로 무조건적인 환대를 제공해야 하는 아버지는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고 있던 버디에게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선물을 가져다 두는 모습을 들킴으로써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느님이 주문해서 산타클로스가 배달해 놓은 게 아님”(“One Christmas” 294)을 버디로 하여금 알게 만든다. 이 사건으로 버디는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즉 어린이로서 가질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 와해된다. 서로의 규칙과 경계 속에서 아버지와 버디는 초대와 초대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주도권으로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초대한 자와 초대받은 자의 주도권은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넘어갔다 다시 나에게 넘어옴으로써 환대는 자기모순적인 특징, 즉 “자기파괴적일 수도, 자기면역적일 수도 있는”(Derrida 5) 특징을 동시에 보인다. 자기가 가진 주권에 집착하는 조건적 환대와 순수한 무조건적 환대는 “이질적이면서도 불가분리적”(김진 78)인 것이며 같은 영역 안에서 “초대의 권리와 방문의 권리”(김진 82)를 가진 아버지와 버디는 결국 용서를 통해 화해 지점을 찾는다. 아버지는 뉴 올리언스를 떠나는 버디에게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큰 비행기를 사서 보내주고, 앨라바마로 돌아온 버디는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다.

안녕하세요, 아빠.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내요. 저는 비행기의 패달을 밟는 법을 너무 빨리 배워서 곧 하늘로 날아갈 거 같아요.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그리고 네, 아버지 사랑해요. 버디가.  
 (“One Christmas” 297)

자신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그토록 듣고 싶어했던 아버지에게 버디는

초대받은 자의 마지막 환대로 사랑한다고 말함으로써 아버지가 자신에게 제공했던 환대에 응대한다.

버디가 인생에게 겪은 두 번째 위기는 바로 「추수감사절에 온 손님」에서 나타난다. 이 작품은 당시 8살이었던 버디가 12살인 강적을 만나 매일 매일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반 자서전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버디의 강적은 바로 오드 헨더슨(Odd Henderson)이라는 아이로 오드는 초등학교 1학년울 두 번이나 유급당하여 나이가 또래보다 많지만 현재 버디와 같은 2학년이다. 버디는 오드에 대해 “성적이 안좋은 것은 오드가 바보라서가 아니다. 오드는 똑똑했다, 아니, 교활하다는 것이 더 적절한 단어일 것이다”(“The Thanksgiving Visitor” 241)라고 묘사함으로써 오드의 폭력성에 내재된 인위성을 부각시킨다. 버디의 평가에서처럼 오드가 버디를 괴롭히는 것은 오드의 말에 의하면 버디가 “계집애같은 녀석”(“The Thanksgiving Visitor” 246)이기 때문이다.

오드가 나에게 가한 괴롭힘을 나열하자면 한 페이지도 넘을 것이지만, 내가 화가 나고 가장 괴로웠던 것은 오드가 나타나려고 하면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것이었다. 한번은 오드가 나를 벽에 몰아세워놨을 때,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싫은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적이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는 나를 풀어주며 “너는 계집애 같아.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잡아주려는 거야”라고 말했다. 그가 옳았다. 나는 계집애 같았다. 그가 그 말을 한 순간,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방어하는 것이 외에는 그의 판단을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The Thanksgiving Visitor” 246)

어린 시절 카포티는 “체구가 작고 병약하며 유별나게 민감한”(김정매 665) 아이였다. 단편소설에서 카포티는 버디의 외모나 동성애적인 성향에 대해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sup>9</sup> 카포티는 버디와 오드를 통해 “남부

<sup>9</sup> 카포티에 대한 연구를 보면, 카포티의 동성애적인 성향은 “그가 글을 쓰기

출신의 동성애자와 남부 출신의 동성애 혐오자를 같은 테이블에 놓음”(Bibler 286)으로써 당시 사회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오드의 폭력에 버디는 악몽을 꾸기도 하고, 결국 학교에 가는 것도 싫어한다. 이런 버디의 문제를 알게 된 숙은 추수감사절에 오드를 초대할 것을 제안한다. 버디가 직접 오드를 초대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숙은 버디를 위해 자신이 오드의 엄마를 만나 초대하기로 결심한다.

오드와 버디의 문제에서 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교성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는”(“The Thanksgiving Visitor” 250) 성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숙은 버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서 오드를 초대하는데 성공한다. 숙의 희생과 헌신은 추수감사절 날, 호스트로서 오드에게 무한한 환대를 제공하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숙은 버디에게 호스트로서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준다.

“오드가 왔어요,” 나는 세 번째로 숙에게 알렸다. “오드 핸더슨 말이예요.”

“그런데 왜 오드와 함께 있지 않는 거니?” 숙은 타이르듯이 말했다. “그건 예의바른 행동이 아니야, 버디. 오드는 너의 특별한 손님 이란다. 너는 오드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도록 데리고 다니며 인사도 시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해야 해.” (“The Thanksgiving Visitor” 258)

숙은 호스트로서의 역할인 게스트에게 무한한 환대를 제공해야한다는 전통을 실천함으로써 오드의 폭력성을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이다. 반대로 아직 무조건적인 환대를 제공하기에는 물리적인 나이도 어리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버디에게 호스트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버디는 호스트로서의 주체적인 역할보다는 오드가 가한 폭력의 희생자

---

시작한 8살 무렵”(Garson 9)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카포티의 작은 체구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버디도 역시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로 오드를 피해 자신만의 ‘섬’으로 숨는다.

나는 거실을 빠져 나와 ‘섬’으로 숨었다. 이곳은 내가 우울하거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쁠 때, 혹은 무엇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찾는 장소에 붙인 이름이다. 그곳은 욕실에 있는 거대한 옷장이다. 욕실 자체는 화장실용 기구들을 제외하면, 안락한 겨울의 거실처럼 2인용 의자, 러그, 화장대, 벽난로, 그리고 그림이 걸려있다. (“The Thanksgiving Visitor” 259)

버디가 숨어있는 ‘옷장’은 20세기 동성애자들에 대한 억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물이다. 옷장은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의 부재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은유적 공간”(Brown 200)을 상징한다. 버디가 옷장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당시의 동성에 혐오로부터 도피하여 은폐할 수 있는 공간적, 지각적 상징성을 띤다. 동성애자임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말인 ‘커밍아웃’(coming out)이 바로 ‘옷장에서 나온다’(coming out of the closet)는 말을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옷장은 영원한 독립체가 아니기 때문”(Young 206)에 옷장에서 나와 타인과 책임을 공유하고,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버디에게는 옷장에서 나오는 기회가 모두 두 번 주어진다.

버디만의 ‘섬’에서 커밍아웃하게 되는 첫 번째 계기는 오드에 대한 복수에서 이다. 옷장이라는 상징적인 공간 안에서 버디는 오드의 인생에 큰 결함을 줄 수도 있는 광경을 목격한다. 그것은 바로 “숙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준”(“A Christmas Memory” 223) 카메오 브로치를 오드가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것을 버디가 목격한 것이다. 이 카메오 브로치는 버디와 숙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물건이다.

그것(카메오 브로치)은 우리 둘에게 한 번도 시험해보진 않았지만 마법의 부적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 동화와 같은 세계에서 우리가 행운을 찾아보기로 결정만 한다면 언제든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징표. 그래서 내 친구는 그 브로치를 한 번도 착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잃어버리거나 망가지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었기 때문이다. (“The Thanksgiving Visitor” 260)

버디는 오드의 잘못을 고발하기 위해 숨어있던 자신만의 ‘섬’에서 나와 모두가 모여있는 거실로 향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드의 도둑질을 폭로함으로써 “복수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261)라고 여겼던 버디의 기대와 달리, 숙은 호스트로서의 역할에 충실한다. 숙은 브로치가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있다는 거짓말로 손님인 오드에게 무제한적인 환대를 제공한다. 그러나 오히려 오드는 자신이 브로치를 훔쳤다고 주머니에서 꺼내 놓는다.

오드를 위한 숙의 거짓말은 타인에게 무한한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남부의 파스함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숙의 환대는 오드로 하여금 “스스로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어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함”(Bibler 300)으로써 숙이 승리하도록 이끈다. 무조건적인 환대는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 즉 용서의 문제와 관련”(김진 80)되어 있다. “무제한의 아무 조건없는 환영”(Stronks 74)을 제공함으로써 숙은 환대의 법칙을 고수하고, 숙의 행동으로 호스트의 인질인 게스트로서 오드도 결국 숙의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

브로치 사건은 오드에 대한 숙의 환대를 성공적으로 이끈 반면, 버디에게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숙에게 실망감을 느낀 버디는 집에서 뛰어나와 마당에 있는 훈연실로 다시 들어간다. 그곳은 평상시에는 “들어가기 두려워하던 곳이었으나, 지금 오히려 어둠이 피난처”(“The Thanksgiving Visitor 263)가 되어 버디의 상심한 마음을 덮어주는 공간의 역할을 한다.

버디의 공간을 찾은 숙은 그의 두 번째 커밍 아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녀는 소년에게 왜 자신이 오드를 위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버디,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단다. 잘못을 잘못된 행동으로 갚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오드가 카메오를 가져간 것은 잘못된 일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가 왜 그걸 가져갔는지 알지 못해. 아마도 아예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닐 수도 있어. 이유가 무엇이든, 어쨌든 계산된 행동은 아니었지. 그래서 너가 한 행동이 훨씬 더 잘못되었다는 거야. 너는 그 아이에게 일부러 모욕을 주려고 했잖니. 고의적이었어. 잘 들어봐, 버디. 용서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죄가 있어. 그건 바로 일부러 잔인하게 구는 거야. 그거 이외에 다른 거는 모두 용서받을 수 있어. 그것만은 절대 안 돼. 알겠니, 버디? (“The Thanksgiving Visitor” 264-65)

숙의 조언에는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악의를 지닌 고의성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담고 있다. 숙이 버디에게 내민 위시본의 양 끝을 잡으며 버디는 숙과 계속 친구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빈다. 그리고 버디는 숨어있던 두 번째 옷장에서 나온다. 두 번째 커밍 아웃을 통해 버디는 자신의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고, 이는 오드의 괴롭힘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준비가 되었음을 암시한다. 오드의 사건으로 버디는 시간이 흐르면서 숙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추수감사절 이후 오드는 버디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 “버디와 오드 사이에 존재하던 계급관계가 무너짐”(Bibler 295)으로써 오드의 폭력성은 사라진다. 오드는 버디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고, 버디도 그 이후 군대식 사립학교에 보내져 서로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 버디가 오드를 다시 보게 된 것은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이다. 숙과 버디가 함께 일하고 있던 정원을 지나던 오드는 숙이 옥조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고, 숙은 감사의 표시로 국화 꽃다발을 건네준다. 국화를 주면서 숙은 오드에게 “조심해요, 그 꽃들은 사자니까요”(“The Thanksgiving Visitor” 266)라고 말한다. 마지막 국화꽃의 상징을 통해 카포티는 “꽃을 사자로 바꿀 수 있는 힘을 행사하고 있음”(Bibler 302) 암시한다. 오드의 손에 쥐어진 꽃은 숙과 버디가 계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인함을 담고 있으며, 비록 나이든 여성과 동성애자라는 소외계층이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미국 전체에 퍼져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숙의 행동을 통해 카포티는 동성애 혐오에 대한 배척이 아닌 포용을 요구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교통도 불편한 외진 곳에 사는 친척들이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이라는 특별한 하루를 위해 먼 길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것은 “애정이 넘치고 기억에 남을 만한 모임”(“The Thanksgiving Visitor” 256)을 위한 것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카포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이 미국인들에게 주는 감사와 나눔의 정신을 통해 타인을 수용하고 공감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애착과 카포티만의 문학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카포티의 남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단편소설들에 나타나는 환대는 “사회적 통제의 도구, 남부 특유의 문화 형성에 기여”(Bibler 296)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남부는 역사적으로 보수적인, 다시 말해서 인종과 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카포티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기대에 차서 “과일 케이크를 만들기 딱 좋은 날씨네”(“A Christmas Memory” 213)라고 외치는 숙과 버디를 통해 따뜻한 미국 문화의 실천으로 인종과 성의 차별을 뛰어넘는 남부인들의 포용성을 잘 보여준다.

### III. 결 론

지금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을 배경으로 주인과 손님, 친구와 적, 아버지와 아들, 초대한 자와 초대받은 자 사이의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규칙을 데리다의 환대의 법칙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크리스마스 추억」에서 카포티는 크리스마스를 앞 둔 평범한 남부 가정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일들을 무덤덤하게 그려낸다.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피칸 줍기, 케이크 만들기에 필요한 물건 사기,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 구하러 가기, 당시 남부에서 주조가 금지되었던 상황에서 위스키 구하는 방법 등이 버디의 시각에서 따뜻하게 묘사된다. 「어떤 크리스마스」에서 카포티는 버디가 숙을 비롯한 많은 친척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닌 아버지와 처음으로 단둘이 보내게 된 크리스마스를, 「추수감사절에 온 손님」에서는 다함께 모여 음식과 정을 나누는 추수감사절을 잘 그려내고 있다. 「어떤 크리스마스」에서 인간적인 애정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앨라바마를 떠나 뉴 올리언스에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와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된 버디가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과 그가 현재 속한 곳의 소중함을 깨닫고, 「추수감사절에 온 손님」에서 평생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었던 학교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잘 나타난다.

카포티는 남부작가로 분류되는 것을 꺼려했으나, 그의 작품은 남부를 배경으로 남부인들 특유의 관용과 포용의 문화를 미국의 전통적인 명절인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의 관습을 통해 잘 그려내고 있다. 주체와 객체, 호스트와 게스트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카포티의 작품들에서 찾을 수 있었다. 카포티는 버디를 통해 가족관계, 사회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킴으로써 공동체로서의 화합된 삶을 강조한다. 숙을 통해 보여지는 남부 특유의 포용력은 카포티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적절하며, 카포티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국 남부의 대표적인 작가임에 틀림없다.

## 인 용 문 헌

Aldridge, John W. *The American Novel and the Way We Live Now*. New York: Oxford UP, 1983.

Barr, Jason. "The Seven Deadly Sins in Capote's *A Tree of Night*." *The*

- Explicator* 66.4 (2008): 200-2.
- Bibler, Michael P. "How to Live Your Local Homophobe: Southern Hospitality and the Unremarkable Queerness of Truman Capote's "The Thanksgiving Visitor"." *Modern Fiction Studies* 58.2 (2012): 284-307.
- Brown, Michael P. *Closet Space: Geographies of Metaphor from the Body to the Globe*. New York: Routledge, 2000.
- Capote, Truman. *The Complete Stories of Truman Capote*. New York: Vintage Books, 2004.
- Carson, Warren J. "Southern Obsession, Southern Delight: New Perspectives on Race and Place in Southern Literature." *Southern Literary Journal* 37.2 (2005): 152-55.
- Derrida, Jacques and Anne, Dufounmantelle. *Of Hospitality*. Trans. R. Bowlby. Stanford: Stanford UP, 2000.
- Derrida, Jacques. "Hospitality." *Angelaki: Journal of Theoretical Humanities* 5.3 (2000): 3-18.
- Garson, Helen S. *Truman Capote*. New York: Frederick Ungar Publishing Co., 1980.
- Hassan, Ihab. *Radical Innocence*. Princeton: Princeton UP, 1961.
- Jennings, Theodore W. *Reading Derrida/ Thinking Paul: On Justice*. Trans. Sunghoon Park. Seoul: Greenby, 2018.  
[제닝스, 테드 W. 『데리다를 읽는다 바울을 생각한다』 박성훈 역. 서울: 그린비, 2018.]
- Kessel, Tyler. "A Question of Hospitality in Don DeLillo's *The Body Artist*." *Critique* 49.2 (2008): 185-203.
- Kim, Jin. "Derridas Philosophie der Gastfreundschaft und Seine Politische Theologie." *Journal of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95 (2011): 59-93.  
[김진. 「데리다의 환대의 철학과 정치신학」. 『철학연구』 95 (2011): 59-93.]
- Kim, Jung-mai. "Truman Capote: His Art and Nonfiction Writings."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34.4 (1988): 663-83.  
[김정매, 「Truman Capote의 예술과 Nonfiction 문학-In Cold Blood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34.4 (1988): 663-83.]
- Kim, Kwang-ki. "Tolerance, Hospitality and Stranger: Habermas and Derrida." *The Korean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36.4 (2012): 141-70.

[김광기. 「관용과 환대, 그리고 이방인: 하버마스과 데리다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36.4 (2012): 141-70.]

Kim, Sang-ku. "Symbols in Truman Capote's *Other Voice, Other Rooms*." *Cogito* 20 (1981): 101-13.

[김상구, 「Symbols in Truman Capote's *Other Voices, Other Rooms*」. 『코기토』 20 (1981): 101-13.]

Lahr, John. "Truman Capote: In Cold Print." *The Washington Post Book World* (1988), no page. Web. <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entertainment/books/1988/05/29/truman-capote-in-cold-print/ab89345b-e375-43d9-bdb2-656a00323aa7>.

Megehee, Carol M. "Decoding Southern Culture and Hospit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e,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2 (2008): 97-101.

Newquist, Roy. "Truman Capote." *Truman Capote: Conversations* Ed. M. Thomas Inge. Jackson and London: UP of Mississippi, 1987. 42-65.

Solomon, Jeff. "Capote and the Trillings: Homophobia and Literary Culture at Midcentury."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54.2 (2008): 129-65.

Stronks, M. C. "The Question of Salah Sheekh: Derrida's Hospitality and Migration Law."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in Context* 8.1 (2012): 73-95.

The Stonewall Riots. <<https://www.history.com/topics/gay-rights/the-stonewall-riots>.>

Young, Stephanie L. "Personal Stories of "Coming In" and Coming Out of the Closet." *Sexuality & Culture* 16 (2012): 205-7.

yyioua@hanmail.net

논문접수일: 2020. 9. 14 / 수정완료일: 2020. 11. 23 / 게재확정일: 2020. 11. 25

